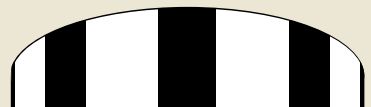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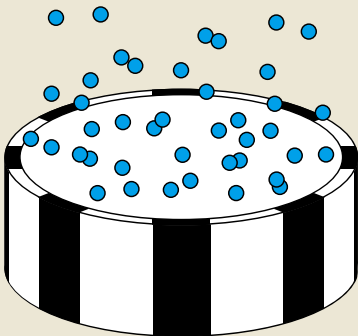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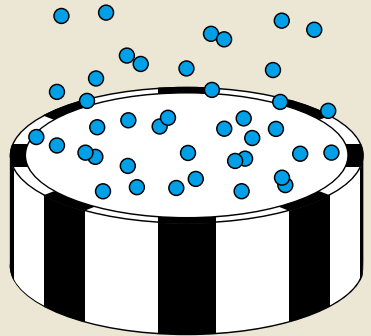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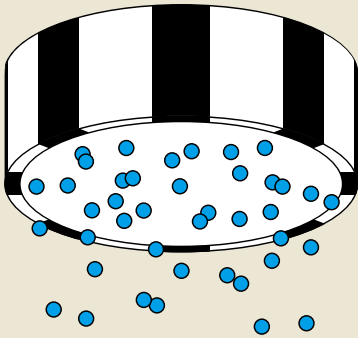


artist의 출현,  
작은것들의 도시와  
만드는 사람들

김문경

2020 활력향연 x npo

05





artist의 출현,  
작은 것들의 도시와  
만드는 사람들

김문경







## 목차

### 1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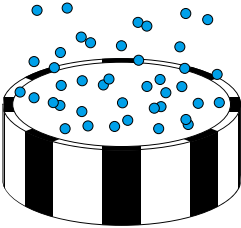
### 2 아티비스트artist 인터뷰

나희경, 내가 보고 싶은 연극을 기획하고 싶어서 페미니즘 연극제  
예람, 연대도 기획도 음악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심의 크기만큼  
지성은, 여성. 일상.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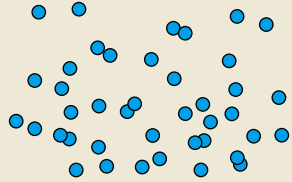
신승은,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은하수, 엄마 예술가 자아 그리고 은하수살롱  
이길보라, 영화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커뮤니티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사를 쓴 이유

### 3 닫는 글

“나는 왜 아티비스트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



# 일러두기







## 예술가artist이자 활동가activist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과 작업을 하는 아티비스트artist들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운동의 흐름들이 있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이 펼쳐지고 있기도 한다. 그 흐름 안에 시민단체나 정당, 노조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이 찾아오는 연대와 창작이자 무브먼트 혹은 굿즈를 동반한 주체적인 캠페인 역시 도드라지고 있다.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단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연결된 개인들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 등장했고 이는 2010년대 주요 담론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현장을 작업의 주제로 바라보거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를 예술가이자 활동가로서 정체화하고 삶의 꾸려가는 아티비스트artist들(artist + activist = activist)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영역을 만들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현실과 작업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는 지금의 동료들, 미래의 동료들과 함께 이 오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나는 나와 내 동료들에 대해 설명할 언어와 계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artist 연구의 필요성은 2010년대 이후 소셜 영역에 도드라지게 나타난 아티비스트artist들을 비롯하여 단순히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작업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독자와 관객을 발명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만드는 사람들’을 뜻한다. ‘우리는’ 거대담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술가이자 활동가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독립된 개인/그룹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연결**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 이는 한 명 한 명이 가진, 지금 여기 활동을 조망함으로써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흐름의 작업의 방식과 출현에 대해 다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활동가 연구자 예술가들이 앞으로 시민사회영역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의 예측이자 예술가들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작업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서로 조립되고 동행할 것인가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 시민사회영역의 인적자원들의 관심사의 흐름은 물론 밀레니얼 세대의 연대와 운동에 대한 주제, 키워드 역시

도출될 것으로 소망한다.

#새로운운동방식 #예술 #연대 #젠더담론 #덕업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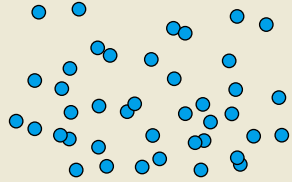
#취향의공동체 #밀레니얼세대

본 연구 소책자는 동시대 아티비스트 중 일부와 구술사적 인터뷰  
진행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의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마음을 거쳐서  
지금에 와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정 작품 혹은  
활동의 의미를 묻는다고보다는 한 명의 아티비스트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집중하여 들었고 여러분은 흐르듯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아티비스트artist  
인터뷰





## 나희경, 내가 보고 싶은 연극을 기획하고 싶어서 페미니즘 연극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연극을 만들고 싶었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연극을 만들려면 저는 어쨌든 기획자 포지션이고 연출이나 작가가 아니니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작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연극제를 할 생각을 하고 만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저랑 같이 작업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냥 추천 받아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요새 어떤 작업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실컷 나눴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페미니즘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 해에 정말 많았거든요. 2017년에.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많이 각성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7년에 그런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이 작품들이 젊은 창작자들의 작업이고 공개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짧다보니 잘 알려지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작품들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페미니즘 연극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연극제를 생각한 거죠. 연극제를 하려면 어쨌든 어떤 축제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풀(pool)이 있어야 되는데 2017년에 그 풀이 없었어요. 작품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풀이 없는 게 보였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2017년 겨울이었나. 페미니즘 연극제 내년에 하자고 낸 공고가 아무 것도 담보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였고.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화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전공이 방송영상전공인데 동아리는 연극동아리를 했거든요. 연극이 재미있었어요. 이미 학부 때 내가 일반 회사원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연극을 그냥 할 경우에는 정말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의 시작은 졸업 후에 공연기획사 제작사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국공립극장에 갔다가, 아, 혼자 연극 기획일 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나와서 시작한 거죠.

‘내가 혼자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언제 오냐고 물으면 저 같은 경우는 3년 차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규모를 이 정도로 유지하면 혼자 할 수 있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요. 처음에 공연기획사 들어간 게 2009년이었어요. 한 공연 기획사에서 2011년까지 있었는데 그 시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경험을 남겼죠. 그다음에 남산예술센터에 티켓



매니저로 갔어요. 티켓 파트로 가서 정말 편안하게 있었죠. 그냥 딱 정시출근에 정시퇴근, 연차 휴가 (다 있는) 국공립이니까. 그 전에 제가 하던 일의 업무강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말 티켓(판매)도 하고 홍보 마케팅이고 뭐고 하고 죄다 했으면 여기서는 딱 티켓 파트만 하고 가끔 이제 홍보 쪽 도와주고. 돈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약간 그 전에 비해서 휴식하는 느낌이었는데 한 1~2년 어느 정도 휴식이 된다 싶으니까 또 금방 나온 거죠.

2014년부터 혼자 연극 기획일을 했어요. 2014년에 나와서 올린 첫 번째 공연이 <달나라동백꽃의 뽕뽕뽕>. 2017년 이전까지, 물론 제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연극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만, 제가 참여한 연극도 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극이었어요. 그때 일할 때의 기준은 ‘진짜 하기 싫으면 진짜 못하는 거’다 였어요. 진짜로 마음이 가지 않으면 너무 하기 싫거든요. 맞아요,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극 독립기획자로 어디 소속된 게 아니라 엄청 계속 쉬지 않고 일했어요. 돈을 적게 받고 일을 많이 했죠. 많이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니에요. 기업형태 사업체 형태가 아니라 저처럼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보니, 사람들이 절 더 찾는 경향도 있고.

결국 저도 사업자(등록)를 내긴 했는데 언제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정말로 기억이 없어요. 어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돼서 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일 처음에

하면서부터 ‘플레이포라이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상호명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플레이포라이프라는 이름은 독립 기획자를 시작하면서부터 썼던 건데 계속 썼어요

플레이포라이프 꽤 긴 단어인데 굳이 이름으로 계속 쓰는 이유는 ‘포 라이프’라는 말이 좋아서예요. 앞에 있는 ‘플레이’가 우선이 아니라 뒤에 있는 ‘포 라이프’가 우선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연극이 저한테 그런 의미였던 거 같아요. 삶이 우선이라는. 남들은 책보는 걸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연극을 보는 게 그런 역할을 했던 거 같아요. 연극을 보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장 열심히 한 공부인거죠.

대학교 때 왜 연극동아리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우연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있었고 점수 맞춰서 영상할 수 있는 학교를 갔죠. 근데 이제 그 과는 6mm카메라 혼자 들고 VJ를 양성하고 그런 인력을 육성하는 형태였고 저랑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산만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동아리를 하나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영화동아리에 살짝 가봤는데 거기 앉아있는 선배 태도가 너무 맘에 안 드는 거라. 어이쿠 하고 몸을 돌리는데 영화동아리 바로 맞은편에 이제 연극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연극동아리를 해볼까? 만약 그 동아리 선배 태도가 너무 ‘나이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페미니즘 연극제가 아니라 페미니즘

영화제가 2018년에 열렸을 수도 있지. 이러나저러나 포스터도 비슷했을 거 같고 제가 일하는 방식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작품을 선택하는 방식도 같았을 거 같아요. 동아리에서는 연극에 필요한 모든 역할 다 해봤죠. 졸업하고 기획을 굳이 했던 건 연극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걸 찾은 거였어요. 연극은 하고 싶은 데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연기획 회사에 들어갔던 거고 독립기획자로 일하다가 강남역 사건이 터진 거고.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죠. 새로운 관점이 들어 온 거죠.

그전까지는 어쨌든 주류의 관점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봤는데 새로운 관점이 제 자신 안에 들어온 거고 그게 좀 많이 충격이었던 거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애초에 남성 동료들과 함께한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일단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온 데다 기획을 하면서도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여자 연출들이랑만 해?” 이런 얘길 들었어요. 성별을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2014년에서 2016년을 봤을 때 남자연출자랑 한 게 거의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면 여성 배우들이 다른 연출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성 배우들이 소개해준 사람들이 자기가 작업해서 좋았던 연출자, 여성연출자였던 거 같아요.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아직은 어떤 창작자가 어떤지 잘 모를 때니까 거의 웬만하면 거의 일 들어오는 대로 했죠.

강남역 사건 터지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연극관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닐 때, 그때는 뭐 그냥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만나면 그냥 성토대회예요. 자기가 어땠는지, 왜 이 연극계 왜 ‘빵았는지’, 서로 각자 막 그런 얘기하고. 그냥 어떤 작품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 시기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거 같아요.

페미니즘 연극제 진행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었죠. 슬로건만 보더라도 1회가 ‘플레이 플레이 페미니즘’이었고 2회가 ‘연대하라’ 이런 거였고 올해 3회째가 이제 ‘아이엠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걸로. 응원하다가 연대하다가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 건 2회 때 느낀 바가 커서 그래요. 2회 때 약간 애매한 게 있었어요. 연극제가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팀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팀 안에서 사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거 맘에 안 들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2회 때 이제 팀들에서 정작 이제 페미니즘 공연 자체는 페미니즘을 얘기하는데 그 팀 내 분위기나 그런 것은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3회에 이제 어떻게 할까 내부에서 회의하면서 자격조건을 ‘페미니스트로 걸어야 한다’ 내가 막 이랬는데 주변에서 말렸죠. 사방에서 이제 뜯어 말린 거지. 그건 아니다. 이게 무슨 검열이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주제를 아예 ‘아이 엠 페미니스트’로 가자. 그랬더니 올해 진행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각자 딱 집중하는 주제에 맞춰서 페미니스트로서의 고민들이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올해 페미니즘 연극제 안에서는 <공기의 딸들>이라는 작품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시도해보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올해는 공공이랑 하는 작업 말고는 저는 하나도 취소 안했어요. 극장 소독은 극장에서 다 하고. 저는 방역 물품 다 사고 정부지침 다 따르고. 관객 대면 큐알 코드 찍고 방명록 작성하고 손 소독하고. 지침 지켜가면서 하면 된다는 주의였고 실제로도 뉴스 보면 공연장에 확진자가 왔다가도 확산이 안 되는데 왜 연극공연장을 코로나가 확산 될 소지가 많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화가 나죠.

페미니즘 연극제 올해로 3회를 마무리했고 조금 바뀐 게 있는지 그런 걸 느끼는지 묻는다면. 막상 이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 저도 그렇고 다른 동료들 같은 사람들은 바뀌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동시에 받아들이는 쪽이 더 방어적으로 되고 있다고도 느껴요. 사실 페미니즘 연극제에 관해서도 연극관의 반응은 서로 관심을 안 둔다는 느낌?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저런 공연 왜 만들어? 포스터가 왜 저래? 왜 대상화 해?’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저러다 망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관객들이 먼저 바뀌고 있고 요구하고 있어요. 연극을 만드는 주체들의 반응보다 관객의 반응이 더 빠르기도 빠른 거고 일단 연극은 관객과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 연극이 가진 메시지든 예술성이든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이랑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소통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페미니즘 연극제도 끝나고 한창 바쁜 게 살짝 마무리가 되어서 일단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다음 작업에 대한 긴 계획을 세운 건 없어요. 11월 12월에 공연 잡혀있는 거 소화하고, 전자출판을 배워볼까 해요. 희곡들을 전자출판 내면 좋을 거 같아서요. 희곡이 좀 출판이 되면 그래도 뭐 동아리든 뭐 지방 극단이든 작품 서치 하다가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죠. 워낙 작품들이 한 번 공연되고 마니까 아쉬워서요. 일단 내년에는 작품을 새로 받은 게 거의 없어요. 페미니즘 연극제 역시도 내년에 한 해 쉬어 가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이걸 계속 내가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서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 예람, 연대도 기획도 음악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심의 크기만큼



음악을 처음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보통 다른 인터뷰들에서는 항상 “중학교 때 기타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서 했다.”라고 했는데, 왠지 그런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음악을 처음 시작한 게 뭘까. 내가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일까, 일단 이런 고민도 생각도 들면서. 제가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던 거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랑 친근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이런 걸 좋아했던 거 같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노래 부르고, 그런 기억들이 나는 시작이 사실 음악 시작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진짜 기타 잡고 내가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인데 기타 동아리 선배들이 멋있어 보여서 기타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근데 막상 기타를 딱 잡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아는 코드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막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쉬웠어요. 그게 더 재밌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모습이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응을 해 준 거예요. 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에너지에 사실

힘을 입었죠.

저는 10대 때 근데 모든 걸 추려내고 싶었나 봐요.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 썼던 거 이런 걸 봐도 내가 누군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친구들이 좋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싸했으면 (음악을) 안 했을 거 같아요. 더 이상 아닌가보다 했을 텐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친구들도 약간 재밌었나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그 <자라지 않는 선에서>라는 그 데모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거 세상에 100장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앨범 만들게 된 게 <잘 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말 자체가 내가 지금… 사실 별로…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하도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정해져 버린 거야 정체성이.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음악을 그냥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자라지 않는 선에서> 그 앨범을 만들고 나서 사실 그게 마지막 앨범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근데 막상 내니까, 내가 할 수 있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럼 그때 어머니가 반성문을 쓰셨다고… 내가 앨범을 딱 만들었어. 하고 얘기하니까, 애가 뭘 하긴 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전에는 애가 무슨 음악을 계속 하겠어,



막 이랬는데, 그걸 만들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반성문을 쓰셨다는 거는… 아무튼 저도 사실 그 앨범이 에너지가 되어서 활동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창시절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됐던 거 같아요. 오늘 듣다 보니까, 반응…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격려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꼭 대안학교라서가 아니라, 마침 그게 대안학교였는데, 누구라도 그런 무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진지하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우연하게 페이스북에서 그 ‘우장창창’ 이제 그 음악가들이 연대를 한다는 2016년도 글을 보게 되었어요. 올라온 걸 보고 아, 시위 현장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뮤지션들을 막 연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우장창창’에 가서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의 장이 열리게 된 시점이 그 연대 공연을 했을 때. 커뮤니티라든지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게 연대 현상이었어요.

‘우장창창’이라는 공간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체가 되게… 사실 그런 일이 생긴 건 안타깝지만 저는 약간 기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냥 다른 진짜 말씀 하신 것처럼 연대 현장이고, 그냥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기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됐던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도 뭔가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오히려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공연장에서 계속 공연을 하면서 연습이 됐던 거죠.

2016년 여름부터 2017년도, 2017년도 초까지 계속 했던 거 같아요.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게 이제 자립음악생산조합에. 지금 그게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잠깐 멀지 활동을 하면서 그 EP를 자립 로고를 하고 냈는데. 그게 <새벽 항해>.

<새벽 항해>가, 그 어떤 연대 현장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만들게 됐던 노래들인데, 좀 더 개인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게 연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어떤 민중 가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주변의 우려도 있고. ‘너 이런 데서 공연해도 괜찮겠어’ 같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때는 약간 ‘이런 반응은 뭐지? 그럼 이런 데 아니면 또 어디서 (공연) 하겠어?’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 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요.

여기서 이미 현장에서 노래를 했고, 그 감각들을 다 익힌 상태에서, ‘아, 그래. 이 길은 아닌 거 같아’라고 나올 수 있는 계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치열하게 살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오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나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음악을 내가 해야겠고, 그 연대활동을 해야겠고, 이런 지점이 계속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거 같기도 해요. 뭔가 계속 나누고 싶고. 나만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연대라는게 제가 지금 말하는 연대가 그런 ‘우장창창’의 현장들이 아니라, 사실 이번 앨범도 사실 저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는 어떤, 연대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얘기를 쏟았을 뿐인 건데, 그 그래서 제가 공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사실 단순히 음원으로 내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사실 앨범 만드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혼자 만들었으면 진짜 꼴 보기 싫었을 텐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앨범이라서, 너무 힘들지만 고맙고 소중한 그래요.

그런데 약간 그런 이런 활동연대 일을 하면서 제주도 오라는 등 현장을 가면서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 현장에 대한 노래를 써서 사람들에게 부르나. 내가 거기 주민도 아니고 거기 사람도 아니고 내 당사자도 아니고. 특히 소성리나 강정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헤아릴 수가 있나. 그런

고민들이. 제가 해야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건 너무 당연히 아닌 거지만, 내가 이렇게 주제넘게 <섬의 노래> 기획 앨범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최근에 그 다시 그 <섬의 노래>라는 주제로 지금 칼럼 쓸 게 생겨서 글 쓰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다 답을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제 자신한테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제주도 현장에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하는데, 이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제주도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제가 제 작업 안에서, 성장하고 진짜 함께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2018년도쯤부터 이제 현장뿐만 아니라 어떤 인디 신을 좀 더 깊게 마주하게 된 거 같아요. 요새 홍대 쪽에 가면서 동료 뮤지션들이 생기면서, 그때 커뮤니티를 한참 활발하게 만들었던 게 2018년도인 것 같아요. 팬도 생기고요. 유튜브에 당신을 ‘직캠’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음악팬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은 공연을 듣고 싶어서. 다음 앨범은 아직 안 나왔는데, 새로운 거 듣고 싶다고 올리잖아요.

첫 음악 공연 기획은 그 때는 네 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 학교 친구들인데, 이제 졸업하고 모여서, 우리 페미니즘 관련해서

공부하고, <괴물의 밤>이라는 기획에서 <여성 괴물>이 나왔어요. 세상이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힘을 가진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녀’다, ‘괴물’이다. 여성을 괴물화 했다. 그래서 여성 괴물 역사 관련한 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기획을 이제 처음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기획공연을 했어요. 아는 공연장들이 생기면서 ‘아, 이 공간에서 내가 공연을 기획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된 거 같아요.

근데 기획 일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게 느끼는데, 예전에 시와 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흥대에서 활동하면서 공연이 너무 없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를 불러주는 데만 가야 하나, 내가 기획을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던 생각이 났나봐요. 그래서 돈 때문이라기 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계획을 하고, 단순히 오늘의 라인업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이 노래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또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저. 예람이 생각하는 예람은 자유롭고 싶은 사람인 거 같아요.

늘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늘 어딘가로. 그 떠났다는 게, 여기를 떠나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꾸 어떤 집을 찾는다거나. 가사에서도 보면 ‘내 고향이 어디일까’ ‘집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걸 계속 찾아 헤매는 거 같은데, 어디로 계속 건너가고. 어디론가 가요.

근데 그게 어떤 자유와 해방, 이런 걸 계속 갈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세계 어떤 특별한 목적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지성은, 여성. 일상. 퍼포먼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술 관련된 모든 과목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길로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께 예술 관련 진로로) 가고 싶다고 말도 하고,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으시고 공부 쪽으로만 가길 원하셨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거든요. 실제로도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을 7년 정도 했는데, 미대 다니면서 수학으로 용돈벌이 한다고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하다보니까 그 길로 언젠가는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예체능 관련된 학원은 다 끊고 공부에만 전념하던 시기를 지나 고3 때 도저히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로를)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때는 미술도 공부하고 싶고, 연극영화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극영화는 공동의 작업이고 미술은 개인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대를 선택했고, 미대를 간다면 (미대도 과가 많은데) 뭐를 선택해야 하나 그런 거죠.

미술하면 굶어죽기 딱 좋으니 디자인과를 가야 한다. 그나마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디자인을 준비했는데 실기가 부족해서 입시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만 2년 입시하고, 떨어지고 나서 삼수할 때 회화과로 가고 싶어서 학교에 갔는데. 사실 현대미술을 배우고 미술사를 배우면 이미 어떤 장르간 경계가 무너져있고, 이미 뒤섞여있는데 회화를 고집하면서, 선생님들이 페인팅을 가르치는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갈등이 있었고, 원래부터 연영과를 가고 싶었던 지라 퍼포먼스 아트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학교에선 절대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지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있다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갚느라 수학 가르치는 일 하다가, ‘아,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이것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애’ 싶어서 굶어 죽어도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존 수학 강사일도 정리하고, 알바도 정리하고, 작업만 하려고 한 게 10년 된 거예요. 올해가 완전 전업 작가로 길을 걸은 지 10년이 됐어요.

2011년부터 다시 작업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일만 하다가 그림을 쉰 지가 오래됐으니까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드로잉을 조금씩 하던 그 즈음 배우들이 보는 사이트에 ‘퍼포머’를 찾는 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그게 ‘배우로서 데뷔’가 되는 건데 그게 서울 변방연극제에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배우/퍼포머’의 역할을 해봤는데 이걸 지속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2012년까지는 아무 작업이 없다가 2013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극단 미완성’을 만들었어요. 극단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프로젝트 성 그룹이죠. 퍼포먼스 그룹에 소속이 돼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림은 계속 그려서 2013년에 <전업주부 안내서>라는 전시를 했는데 전업주부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저는 드로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퍼포먼스가 그걸(메시지) 출현시키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했고, 그게 2013년도 (작업)에 맞물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작업이 지금의 형태처럼 그림보다는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극단 미완성’같은 경우는 2013년에 열린 서울 변방연극제의 출품작 <카페 미완성>에 출연할 배우를 구한다고 공고가 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 뽑힌 배우가 셋이었고 기존 멤버가 다섯 명 정도여서, 전부 합치면 열 명이 안 되는 그룹이었어요. 디자인해주는 친구까지 하면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배우도 몇 명은 있어야 되니까 배우, 연출, 디자인 이렇게 다 역할들이 있었는데 연영과 출신은 2~3명 정도, 나머지는 영상 전공한 사람, 디자인 전공, 문학. 다 예술 계통이긴 한데 전공이 다양하게 포진돼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연출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서 저는 그 뜻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두가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연출이 끌고 가는 구조에 팀원들이 지쳐서 2년 만에 와해되었어요. 그래도 그런 방식과 그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들이 저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퍼포먼스 장르에 어떻게 접근해가고 만들어가고 할까 (고민)했을 때, 아무 것도 배운 것도 해본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그룹을 만난 게 저한테는 일종의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저에게 어쨌든 약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각자 자기 역할/분야를 찾아서 흩어졌는데 그 과정이 ‘내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겠다’고 시작하기엔 좋았던 시간이었죠.

<전업주부> 전시는 두 번에 나뉘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홍대의 어느 카페에서 했구요. 두 번째는 ‘광진교 8번가’라는 광진교 다리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광진교8번가가 그곳 이름인데요. 다리 중간에 밀이 유리로 뚫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공연도 하는 공간이라서, 거기서 했었죠.

일단 제가 처음 했던 카페 같은 경우도 공모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배치하고 걸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서 됐고, 그래서 전시를 한 거구요. 광진교 8번가는 사진으로 미리 봤는데 여기도 공간이 괜찮네 싶고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했고요.

작업은 혼자 만들지만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부탁하죠. 주로 조언을 얻는 동료라면 남편. 남편이 저랑 같은 과를 나왔어요. 서양화를 전공했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생계유지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미술사도 잘 알고 철학책도 많이 읽고, 제가 몸으로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남편은 저의 그림보다 퍼포먼스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은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었고 퍼포먼스는 좋은 지점을 얘기해줘서 참고하고 그랬죠.

지금은 퍼포먼스에 마음의 추를 더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 장르를 고집하겠다는 건 아니라 어떤 작업이 떠올랐을 때 그게 퍼포먼스화 돼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도 이걸 그림이 더 좋겠다 하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장르적으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부수업>도 그런 쪽인데, 결혼하면 웨딩 사진을 찍을 때 모두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짝을 이뤄서 동세를 연습하듯. 그 행위를 봤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저에게 각인이 됐고 저걸 모두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발한 거예요. 이 ‘신부수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아예 이것을 수업화시켜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흐름에 따라 게 넘어온 건데, 결국 모든 이미지가 공상하게 되는 건 몸으로 만들고, 액션화 하는 게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먼저) 그려야 되겠다, 나중에 퍼포먼스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죠.

저는 결혼식을 안했고 결혼전시를 했어요. 하루였고요. 보통 결혼식은 정해진 시간에 하잖아요.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시 공간 시간에 맞춰서,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전시 겸 사람들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보는 거였어요. 부케라든지 면사포 같은 게 준비돼있어서 그걸 써보고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고.

원래 저희는 사귄 때부터 우리는 (결혼)식하지 말고 전시를 하자고 약속했고, 공동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둘이 작업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같이 안 되겠어, 각자 하고 각자 전시를 걸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페인팅과 드로잉, 평면 작업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업이랑 형태도 다르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저랑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끝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신부되어보는 걸 같이 했고, 저희가 게릴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건 같이 했고. 나머지는 각자 작업을 했죠.

저는 일상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요.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하고요. 예컨대 단어가 낯히면 단어를 메모, 문장이 들어오면 문장을

메모해놓고. 나중에 그것들이 조합돼서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동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보통은 이미지로 동시에 떠올랐을 때 인 것 같아요. 퍼포먼스 작업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축적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확 알아차리면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전업주부>는 엄마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엄마가 전업주부가 아니시거든요. 항상 맞벌이를 하셨는데 집안일을 항상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가사노동이 엄마의 전체 노동에 포함되는 거라면, 엄마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가사노동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 그게 일종의, 사실 작가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가는 작업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도, 내가 지속적으로 파고들면서 작업으로 만들어 내는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한두 해 그러다 말 수도 있잖아요. 작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작가노트를 쓰는 게 제일 힘 들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작가가 작업노트라는 걸 쓸 때 ‘내가 정말 여기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고도 느끼거든요.

그 이후에 생계형 움직임은 폴리마켓에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건데, 거기서 제 몸을 가지고 나가서 <제 연기를 사세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팔았을 때 내가 최저시급을 벌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저시급정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걸 얼마에 팔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개를 내가 10만 원에 팔았다. 그럼 한 번에 벌수도 있잖아요.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것부터가 숙제였는데, 제가 팔았던 움직임들이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하면서 취하는 태도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걸기라든지 인사하기라든지. 그런 걸 팔았는데. 그걸 팔 때는 '7개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다 팔았을 때 최저임금이 챙겨지는 정도면 될까?'라고 생각하고 책정해서 처음에 팔 때는 다 팔았어요. 두 번째 팔 때는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 들었던 시간도 있잖아, 내가 이걸 고민하면서 이 동작을 구상하고 연습하는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개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격을 조정했고, 나중에 여러 개 사면 좀 DC해주고.(웃음) 한 개를 사면 DC를 안 해주는 데, 예를 들면 친구가 둘이 와요. 그럼 친구가 둘이 오면 하나씩 산다고 하면 합쳐서 두개가 되잖아요. 그럼 두개를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을 볼 때는 각자 원하는 데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나는 저기서 보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상관없다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게임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면 기다렸다가 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싶어. 그러면 누군가 사기를 기다리면서 내 돈을 안 쓰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난 나 혼자만 보고 싶어 하면, 저 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선택도 관객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나누는지 결정하는 것도 관객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관람 방식을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럿이 친구들이 와서 나눠가지고 사는 경우가 가장 사례가 많았던 것 같고요.

궁극 체험관이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하기. 저는 그 작업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 작업들 중에서도. 신부수업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좋았지만, 이건 훨씬 더 치열한 느낌. 제 삶으로 와 닿고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라서 공연도 길에서 하고, ‘저기서 해 주세요’하면 저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체감적으로 훨씬 힘들면서 치열하고 재밌고 짜릿한 그런 공연이었어요.

연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그런 척을 해도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연습한다고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연기를 할수록 ‘인간으로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기술적인 걸 습득할 수 있잖아요. 수업도 듣고 말씀하신 발성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 내가 좋은

인간이 돼야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좋은 인간이란 뭘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그걸 알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업주부>도 우리 엄마는 저렇게 다 희생하면서 아빠랑 돈은 똑같이 버는데, 집안일은 왜 엄마가 다 혼자 할까? 이게 너무 이상하고 엄마를 이해할 수 없고 동시에 엄마 세대의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그걸 이해해야만 이걸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회의 문제였고, 누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보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이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었어’라고 이해되는 순간 제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작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움직임>도, 저도 예술을 하고 있지만 예술가들이 맨날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걸로 사람들은 보잖아요.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하고, 너희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국가에서 돈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걸 가지고, 가난과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작업으로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작업을 봐줄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절되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나는 이렇게 해결해나가는 저 혼자만의 몸부림이 다른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감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작업을 잘 봤다,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는 동생이 “저에게 언니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말했죠.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작가로서도 분명하다고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작가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하지만 유연해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는 설명하는 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하고 유연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그런 건데 분명하고 유연해지고 싶은 사람. 제 마음입니다.



## 신승은,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우선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 만드는 거랑 노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짬뽕해서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스로를 작업자라고 인식한 건 되게 한참 뒤인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초등학교가 약간 음악경연대회에 미친 초등학교였거든요. 진짜 거의 뭐 쿼어 퍼레이드를 반대 집회하려고 기다리는 교인들처럼, 음악경연대회를 학교에서 되게 크게 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로 참가가 가능해서, 저는 바이올린이랑 노래로 나갔는데 그냥 독창 노래를 하고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어, 왜 웃었지? 그런데 약간 그 웃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시 쓰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장원 했어요. 그냥 시, 그냥 뽕 뽕 잡으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뽕뽕 잡는 시’를 써서 냈는데 장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선생님마다 시인해보라고 얘기하면서 막

대단하다고. 그래서 진짜 되게 우습다. 어른들도 우습고, 글 쓰는 것도 우스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의 꿈을 가졌고 작가의 꿈을 가지고 무슨 시 같은 거를 쓰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취미로 이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안했죠. 얘기를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고, 내 얘기를 노래로 부르고. 애들 막 연애하는 거 같은데 나도 막 연애하고 싶고, 이런 거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한 열아홉 살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타로 노래를 만드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그냥 피아노로 이렇게 도미솔 이런 식으로 곡을 쓰기도 하고, 힙합을 좋아해서 컴퓨터로 그런 거 만들고, 남몰래 막 랩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곡을 썼었는데 그러면서 제 꿈이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생각했던 작가의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건 연출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서 각본 연출을 다 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요. 그런 꿈을 가진 채로 영화를 잘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심리학과를 선택했고요.

찾아보니까 박찬욱 이런 사람들 문과 나왔더라구요. 그래 영화과 이런 거 안 간다. 나는 심리학과 간다. 심리학과 가서 심리학과에서 MBTI 배우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만들고 제가 영화 만드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되게 영화를 많이 봤어요. 난 남들과는

다르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 남들보다 더 영화를 좋아한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고전 영화를 열심히 보고 그런 사람이었구요.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졸업할 즈음에, 다른 걸 할 생각이 들고 기타가 있어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 홍대 프리마켓 ;애프터는 스테이지‘라고 그냥 홍대 놀이터에 한 시간마다 버스킹 스테이지가 있고 팁박스 놔주고 이러는 걸 프리마켓 관리하는 측에서 운영하는 있었어요. 거기에 동아리의 한 친구가 활동가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거 언니 한 번 해봐라‘ 그래서 해보게 됐어요. 저는 노래하면은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연습할 때도 선글라스 쓰고 했죠. 공연장 가서 선글라스 쓰고 노래하고, 만 육천 원인가 벌었어요. 내가 30분 공연했는데 만 육천 원 벌었으니까, 그럼 시급이 3만 2천원? 대박이! 이제 노래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매달 어디에 오픈 마이크가 있다더가, 하면 신청해서 공연하고. 하다보니 30분 기획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동료들이 ’앨범 안 내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앨범 녹음 하게 해준다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2016년에.

꾸준히 공연했지만, 내가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잘 없었어요. 나는 영화인. 영화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 한 번도 뮤지션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2013년에 만들고, 2014년에도 만들고, 2015년에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2018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게 <마더인로>예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대학원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문소리 배우가 연출하는 영화 현장에 스태프로 갔어요. 그때는 그냥 아 두근두근 했죠. 뭔가 너무 멋있으시니까. 문소리 감독님 너무 멋있어서 두근두근 했고, 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멋있었고. 어떤 한 스텝이 이랬어요. 제가 연출부고, 저랑 또 다른 연출부 스태프가 있었는데 다음 작품으로 나홍진 감독 영화 현장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체험해보고 싶다고. 폐가 이런 델 가는 것처럼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겠죠? 그때 문소리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얻어야 될 경험은 없다. 그래서 그런 멋있는 순간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인상이 깊었던 건 아역배우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연기를 해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배우가 울다가 너무 연기를 열심히 한 나머지 토하는 걸 봤어요. 너무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나중에 제가 연출부라서 아역배우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촬영 끝나고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마시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죄송하다고. 그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싫으셨을까요. 술 먹고 전화해서.

<마더인로>는 제가 이제 계속 2016년 앨범을 내고 계속 좀 술을 먹을 때마다, 아 나는 정말 영화를 잘하고 싶다는 얘길 했거든요. 입 밖으로든 마음속으로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아예 막 못 찍게 되는 거예요. 안 찍게 되는 거예요. 못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진짜 목표를 바꾸자. 안 찍는 게 아니라 못 찍는 걸 목표로 하자. 잘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찍지 않게 해서 2018년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원로케이션에서 시나리오가

딱 떠올라서, 단편 작업은 되게 빨리 쓰는 편이어서, 두세 시간 이렇게 확 써서 했던 거 같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계속 공연을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고. 다리 다치면 쉬고 공연 계속 했었는데요. 앨범 내고 나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많이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네 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뭔가 연대공연 같은 걸 하면서, 더 저 사람은 연대공연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좀 더 한 거 같아요. 그런 연대공연 쪽에서 절 많이 찾아주신 거 같고. 처음에는 콜트콜텍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했어요. 옥바라지도 했었고. 옥바라지 골목 여관 뒷골목에 밀어가는 데 거기랑 테이크아웃 드로잉도 했었고 분더바라는 어떤 카페에서도 했고요.

그 전까진 진짜, 저는 진짜 저희 집 거실에는 조선일보가 놓여있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이 다 조선일보에서 하는 말, 조선일보를 읽진 않았지만, 그걸 보는 아빠가 하는 말들이 그걸 듣고 자랐고. 그런데 콜트콜텍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건 내가 아는 일이니까 일단 가게 됐어요. 가면서도 약간 겁이 났어요. 가면 뭐하는 거지? 공연만 하면 되는 건가? 근데 갔는데 진짜 거기에 노조원들 가족 분들이 계시고, 자녀분들로 보이는 초등학생 분들도 계시고. 그 모습 보면서 막 그냥 진짜 삶의 얘긴데, 왜 내가 몰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공연하면서 저는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페미니즘은 제가 진짜 정말 무지했다가, 2014년 즈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예술계내성폭력’ 해시태그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봤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가해에 일조를 했구나, 그런 걸 또 느꼈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관련한 곳에서 섭외가 와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이다’라는 주제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연을 한다는 책임감과 뭔가 분노 그런 것 때문에 막 오버해서, 막 옷, 신발, 양말 벗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가.

2014년엔 되게 절망적이었고. 제가 대학원 다녔는데 대학원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항상 그 동네가 너무 이성애 중심적이고, 여혐과 퀴어 혐오가 계속 만발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싫었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혼자 술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혼자 술을 마시러 오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건너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친구가 됐어요. 그때 관심사가 다 페미니즘이다보니까 여기 사장님들이 하는 ‘꼬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싫다. 조금씩 뭐가 보이면서 내가 했던 것들도 너무 후회되고.

그 와중에 제 평생 과제가 ‘여성스럽다’ 여자 사람이 말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 제 큰 과제였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은행 같은 데서 전화 오면 긴장해요. 본인 확인할 때 엄청 여러 번 묻거든요.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제게 막 고환암 광고를 해요. 그러다 제가 “저 여잔데요?” 그러면 갑자기 유방암으로 화제를 틀어요.



어렸을 때 코디네이터 스티커 놀이 하는 것처럼, 항상 저한테는 일정 정도의 여성스러움을 유지해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상한 여자 혹은 귀어로 안 보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항상 ‘여성스러움’을 실천해야한다는 압박이 되게 컸는데. 이제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여성스럽다’는 말이 평 하고 사라지면서 엄청 행복했죠. 엄청 자유로움. 그냥 내가 ‘여자’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2016년 강남역 그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동네에 여자 사장님이 혼자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희선정이라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되게 한옥집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밖과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너무 걱정되서 문자도 하고 자주 가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화장실 갈 때 항상 여러 명이서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하지? 싶었어요.

노래하고 즐거웠던 거를 내가 싹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딱 운명인 것처럼, 영화제 시상식에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데 앞전 떨고 앉아서 보는 그 남자 배우들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악은 제가 되게 편하게 접근하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기타 치고, 그냥 편한 친구 같아요. 편한 친구. 그리고 음악은 내가 좀 못해도, 오! 저 노래 못하는 데요? 저 잘 못하는데? 하면서도 난 내 얘기하는 거니까 좀 편한 느낌이에요. 영화는 막, 영화는 진짜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정말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똥을 싸는 것처럼 정말 힘을 줘서

‘으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요.

안무나 노래는 진짜 생각하는 걸 그냥 바로 하는 느낌인데, 영화는 너무 막 과정을 거치고 막 사람들 만나서, 회의도 하고, 프리 과정, 촬영, 포스트과정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영화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해서 힘들죠.

시나리오도 노래랑 비슷하게 단편 작업할 때는 ‘어, 이거 생각 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 장편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난 시나리오 빨리 쓰는데?’ 이렇게 말했던 모든 제 과거가 저를 노려보면서 “건방진 새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김광석 노래처럼 ‘썼다, 지운다’ 쓰고 있습니다. <프론트맨>도 그게 공모를 3일 전에 봐서 하루 이틀만에 썼어요. <마더인로>도 진짜 하루만에 썼던 거 같아요

음악은 오히려 좀 편한데. 근데 앨범은 더 무리다 이런 생각은 들죠. 너무 회수가 너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앨범을 소규모로 찍다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음악은 그래서 이제 애는 진짜 이제 앨범은 못 내주겠다, 싱글을 내가 내주겠다. 대신 간단한 편성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영화는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지요.

잘 찾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앨범이 진짜 2집을 500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2집을 만들 때 제가 진짜 저렴하게 해서 천만 원정도 들었어요. 근데 앨범 500장을 한 장에 12,000원씩 파는데요.

근데 그게 유통사 통해서 팔면 저한테 한 장당 8,000원인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앨범을 전부 다 내가 유통사 같은 거 없이 정말 내가 500장 다 해서 다 팔아도 그게 750만원이니까. 어차피 (들어간 돈을) 회수 못하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다 아직 잘 그냥 모르겠어요. 줄어들기만을 바라고 있고. 음악은 공연을 조심스럽게 해야겠지. 근데 워낙 이제 공연 도 사람이 더 적게 밖에 못 받잖아요. 큰 공연장을 대관하면 대관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발 좀 안전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영화도 뭐 이거 보조출연 다 와서 마스크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지금 쓰고 있는 영화에는 쿼어 커플 베드 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2019년 설정으로 해야 되나 막 주인공이 딱 아침에 눈뜨자마자 2019년이네 이러고 시작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작업은 장편 시나리오 쓰는 건데, 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기타 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신승은이 말하는 신승은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애”예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음악도 혼자하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제 인생의 투자자잖아요. 재한테 과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밀어줘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은하수, 엄마 예술가 자아 그리고 은하수살롱



아티비스트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활동가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 봤는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활동가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들이 예술작업도 있는데 은하수 살롱 같은 경우는 모임이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주제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하연’에서 ‘은하수’가 된 계기가 확실히 있었던 거 같은데, 2012년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되었던 일 같아요. 저는 2002~2003년에 극단미추에서 배우로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지도 연극 뮤지컬로 공연예술에서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제가 그동안 했던 예술의 환경이, 아이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괴롭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한동안 못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한 1년, 2년 정도는 못 했고, 그리고 아기가 조금 커서 시도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엄마가 계속 파주에서 올라오셔야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항상 울고 있고.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보통 연극이 연습 시간이 2시에서 10시, 이렇게 되거든요. 공연도 8시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못 하겠다. 일단은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내가 못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예술을 당장 톡 그만 두기에는 제 안에 이런 열정이 너무 많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2016년도에 국립극단에서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에서 1인극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가서 <은하수와 별>이라는 1인극 작업을 발표한 거예요. 쇼 케이스도 하고 그때 국립극단에 선정이 돼서 축제에서 공연을 했는데, 축제에서 공연하기 전에, 1인극이니까 쇼케이스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침 이사를 간 이곳이 정릉인데 되게 어두컴컴해요 집이. 해가 잘 안 들어요. 인테리어가 되게 엔틱해요. 이 집 주인이 이대 나오신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되게 고급스럽지만 되게 몰딩이 막 어두워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살롱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사실 해가 안 들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인극을 또 하게 되면서 여기서 그럼 내가 쇼케이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거실에서 사람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때부터 제가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오셨어요. 좀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셔서, 이 작은 공간에서 거실에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 하우스콘서트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데 너희 집 거실에서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9월 27일에 양희은이라는 손님을 시작으로 거실 혁명 예술

파티를 시작하게 됐어요.

‘거실 혁명’은 사실 제가 은하수라는 이름도, 제가 그 전에, 그 미혼모를 위한 모노로그를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아티스트 이윤(불확실)님이신데, 그때 우주, 별, 행성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작을 하다 보니까 여자 이름을 뭐라고 생각할까 하다가 은하수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은하수가 이제 국립에서 발전 돼서 은하수와 별, 이렇게 나온 거고요. 거실 혁명 같은 경우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보내 드릴게요.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은하수 살롱을 하기 전에 친구랑 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이 영어 버전으로 <리빙룸 레볼루션>이에요. 여긴 거실 혁명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너무 일치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 혁명이라는 말을,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따온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행복 서클>이라는 대화 모임을 제가 예술 파티로 했던 기억도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 되었어요. 제가 스무살, 대학 1학년년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배우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제 성향 자체가 그 모임에서 자꾸 막 즐거운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만들는데 드레스코드도 정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포트럭 파티도 했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가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을 제안할 때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조금 조금씩 평등하게 나눴어요.

그게 일이죠, 또. 그걸 기획하고 배분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 땐 이게 기획이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지혜다, 라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집에 모아서 같이 파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하수 살롱에 그 시초라고 해야 되나.

제 장점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말씀해주시기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과, 이런 걸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발견하는 걸 되게 잘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친한 사람과 얘기하다 또 서로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잘 하겠다, 이런 게 보여서 그 분들한테 제안을 하면, 그 분들도 흔쾌히, 어, 내가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극단 미추에서 시작해서 2년, 3년 정도 극단에 있다가 프리랜서로 작업을 했어요. <초인>에서 기차도 하고 <서울 공장>작업,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나, 뮤지컬 <달고나>, 극단 청국장의 <임대아파트>. 이런 연극 작업을 했어요.

저는 늘 보면, 계기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체성이나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 성격이, 제가 좋아하면, 막 며칠 밤을 새서도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해야 되는 성격인 게예요. 근데 극단 미추에서는,



거기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본 연극이 <토생전>이었어요. 그때 김성연 선생님의 배우로서의 아우라를 어릴 때 보면서,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로망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손진체 대표님이 특강으로 오신 거예요. 음성이나 그분의 비전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극단 미추에 들어갔어요. 저는 어떤 계기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한국 전통 연희 배우고, 사람들도 너무 좋으셔서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공연에 경향이랑 자꾸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십 명 안에서 작은 역할보다는, 그냥 한 두 사람 나오고 소수의 작은 공연. 미추는 너무 크니까 마당극부터 해서 대극장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캐리커가 보인다고 보다는, 아. 그림처럼, 앙상블처럼 존재해야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가면 그런 소극장 공연들이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스스로 제가 원하는 작품들을 오디션 봐서 해 보고 싶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프리랜서 배우를 시작했어요.

2016년에서야 1인극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못 했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것도 도움을 다 받고, 지금도 물론 혼자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직 완벽하게 독립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기획이나 작품 쓰는 거나,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건 제가 다 하는 거니까. 보통 연극 작업은 큰 그림 안에서 제가 롤로

존재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보낼 거야, 라는 걸 제가 스스로 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저에게 부담스럽고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저를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별이가 나온 지 시간이 좀 돼서, 아마 그때쯤이면 다섯 살 여섯 살 됐을 때쯤인데 엄마이자 연극인으로서의 삶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워크숍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 같은데, 그때 제가 국립극단의 어린이 청소년극 1인극 워크숍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도 <한여름 밤의 작은 극장>이라는 공연을 동기 언니가 하셔서 구경을 간 거예요. 그때 보고선 어머 이런 작은 공연들이 있구나, 놀랐는데 그 작은 공연을 하시는 배우님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정말 그 여성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아이들 같이 오는 거예요. 엄마이면서 배우이신 분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저런 거는 혼자 하니까 연습 시간도 제가 정할 수도 있으니까, 별이랑 같이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멘토로 유은영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거실 혁명을 할 수 있게, 1인극을 할 수 있게 모든 예술가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같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저희 집 거실에 사람들을 불러서 살롱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러다가 시끄러워서 쫓겨나.’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분은 ‘아니야, 은하수는 너무 앞서가. 계속 하다 보면 건물을 살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 그래서 제가 어떤 것 좀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얘기를 하셔서, 되게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도 저희 독립공연 예술가 네트워크의 멘토시거든요. 그렇게 용기를 주세요.

거기서 그 때 만든 게 <은하수와 별>이에요. <은하수와 별>은 이제 한 명씩 만나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쓴 희곡이긴 한데, 계속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은하수라는 여성이, 엄마가 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그 시간이, 블랙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땅에 발이 닿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마음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많은 지금 신생아 육아를 하는 초보 엄마들이 계속 겪을 텐데, 그런 고충을 같이 나누고, 하지만이 아이가 주는... 제 아이가 다섯 살에 이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5살 아이가, 나를 꽃이라고 말해주고, 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블랙홀에 빠진 초보 엄마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막막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당신의 손을 잡아줄 아이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어린이 청소년극 1인극 워크숍을 통해 만난 작업자들이 주축이 된 독립공연 예술가 네트워크는 정말 이게 한국 연극 작업에서는 없는 성질의 모임이에요. 서로 나이도 모르고, 서로 뭐 어디 출신인지도 전혀 모르고, 정말 작업자로서, 저희는 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규칙처럼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선배 후배 절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닉네임 부르면서 서로, 동등하게 작업자로,

작업으로만 만나라고 해 주셔서, 저는 이 단체가 너무 너무 저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동료들하고도 이야기 나눈 적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연극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100% 비대면으로만 가는 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로서로 숨 쉬는 것들. 그 공간에서 같이 배우와 관객이 존재하는 그 시간이, 저는 연극이 그 시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가치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같이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또 공연을 보는 일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도 고민 중이고요.

## 이길보라, 영화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커뮤니티



저는 저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말하기, 지금과 같은 말하기의 방식일 수도 있고, 혹은 어딘가에 가서 연대를 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매체 같은 경우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혹은 정말 그 상황에 필요한 방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영화감독이다, 그냥 작가라고 스스로를 단순하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직업적 구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들이 다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그 영화와 글이라는 매체를 좋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길보라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농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세상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살아왔어야 했는데요. 그게 통역이 될 수도 있었고, 정말

이야기를, 정말 이야기를 해주는 혹은 설명을 해주는 일들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명명하게 된 거는 물론 당연히 다 자라고 나서였지만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양쪽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막 어렵고, 피곤하고, 물론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지? 하면서 양쪽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청인들은 농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농인들은 청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관심이 저한테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 그때는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장르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PD, 아니면 NGO 활동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두 개가 다른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직업군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활동가 혹은 그게 활동가가 되어서 그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같은 일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고, 어렸을 때 이제 동남아시아나 혹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왜 그러는 건지는 몰랐어요. 나중에서는 내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자의 경험들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수자라서 소수자를 이해한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경험을 넘나들며 만나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게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 농인들의 문화가 이래서 이랬는데,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문화는 어떨까?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자퇴를 하고 스스로, ‘길은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로드 스쿨러라고 스스로를 명명하면서 길 위에서의 배움을 했던 건데요. 그 때 당시에 일단은 저희 고모, 작은 고모가 대안교육과 관련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저희 고모는 사회 노동운동을 꽤 오래하고 지금은 탈핵 운동을 여러, 탈핵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고모가 사실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아무 것도 없을 때 제게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준 건 저희 고모였어요. 그 때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고모와 이제 <길은 학교다>에도 나오지만, 학교 담임선생님이랄지, 아니면 그때 당시 저의 멘토가 있었는데 한 3명 정도에게만 제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고민들, 학교를 그만 두고 여행을 간다. 그런 이야기가 학교 안에 있는 이제 어떤 구성원들에게는 사실은 약간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지지, 근데 그 안에서조차 지지하는 목소리들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그 당시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후원을 받아서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건, 정말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유무를 떠나서 정말 그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전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제가 작업을 한 번 해보고 그곳에서 이제 배웠던 게 사실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사실 저한테는 작업자로서 엄청 큰 전환점이었거든요. 정말 크게 배운 건 이전에는 이렇게 영화 만들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책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를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 저는 제가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영화가 되고, 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전에 명확하게 몰랐어요. 프로젝트 A가 있고, 프로젝트 B가 있고, 프로젝트 C가 있다고 인지를 했는데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 가서 제 작업을 돌아보니까 저는 알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이 있었고, 그걸 답을 찾으면서 코다(CODAChildren of Deaf Adults's) 졸업말로 농인(청각장애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한다)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반짝이는 박수소리>를 찍었고, 그러면서 그 어떤 제가 만난 세상에 대한 것을 책 <반짝이는 박수소리>로 정리했고, 또 이제 그것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로 확장이 돼서 그것들이 베트남 전쟁과 만나서



<기억의 전쟁>이라는 영화의 결과물로 만들어졌고.

사실 그 전에 저의 질문은 ‘여성의 기억은 남성 혹은 국가의 기억과 어떻게 다른가?’였는데,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작 끝, 시작 끝’,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교차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평행을 유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진짜 교차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들이 새로운 작업으로 또 탄생하기도 하고, 한다는 걸 보면서 아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 A가 시작하고 사업 종료하고, 결과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나는 예술가로서 그 때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응용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결국 나는 질문 어떤 A라는 질문에 대한, 예를 들어 <기억의 전쟁>은 B라는 대답을 찾았지만, C라는 대답을 또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이 다른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이것들이 단순하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나는 결국 예술가로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A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찾아나가는 사람이구나. 혹은 끊임없는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가설을 두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잖아요. 예술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사실 예술가는 그런 존재인데 제가 제 스스로를 예술가로 명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 전에는 잠깐 영화감독이라고 명명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는 저 스스로를 제가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답을 찾아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명명하니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시도에서 내가 만났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이 어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아웃풋을 잘 만들어내는 거는 역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 누군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할지라도 사회는 끊임없이 그걸 얘기할지라도 나는 ‘나 스스로를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전환점이었고요 작업자로서.

제가 첫 번째 다큐를 저희 가족 이야기를 찍었는데 그때와는 지금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는 작품들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거 같아요. 페미니즘 리부트 그 이후로 뭔가 그전에는 정말 그냥 다큐멘터리, 노동다큐, 투쟁 다큐멘터리 많고, 투쟁의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들이 약간 좀 많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거대한 단번의 관심을 가지고 투쟁현장에 가서 찍어야지 왜 너희 가족을 찍느냐는 말을 그냥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디폴트값으로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쨌든 사적 다큐에 대한 폼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완전히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곳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것들이 다 그냥 물증이 없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명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언어가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페미니즘 지금 완전 지금은 완전 페미니즘 붐이라서 말 잘못하면 진짜 완전히 걸린다. 이런 주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말들이 떠다니지만 그런 말들을 제대로 잡을 도구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걸 잡기에는 어쨌든 위계라는 게 한국 사회에선 존재하고, 그 위계가 너무너무 어쨌든 저희들은 파워가 없었던 거예요. 사적다큐를 찍는다고 하는 여성 감독들, 신진 여성 감독들이 그런 파워가 없었고, 지금에서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혹은 그런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내놓고 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시선에서 자신의 혹은 위치에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거, 애정하는 거, 혹은 애증하는 것을 정말 자기의 시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작업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거시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건드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 다른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술도 그렇고.

저는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사실 제 작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저는 새롭게 했거든요. 그전에 어쨌든 사적 다큐로 폄하된 어떤 것들을 한국에서 경험하고 난 후에 그래서 저는 <기억의 존재>가 그렇게 만든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로드 스쿨러>도 만들고 <반짝이는 박수소리>도 만들었는데, 내가 이번 작업은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내 내레이션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나의 시선을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 시도를 제가 했던 거거든요. 시도를 했었던 것인데, 근데

저는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 가서 제가 했던 작업을 제가 해왔던 어떤 작업의 방법론이 있고,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올드하다, 올드하고 오래됐고, 오래 됐으니까 버려야 하는’ 어떤 관습적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지만 오래된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만의 시각을 담은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강사님들이 보여주면서 이야기 할 때 그걸 사적 다큐멘터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에세이 필름? 아니면 퍼스널 에세이 필름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 민족지학?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되게 다양한 분류로 호명을 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런 것이 사실 그 감독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아티스틱한 것이다. 이런 걸 각자가 찾아야 된다. 저희 1학기 수업이 주관성이었거든요. 근데 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학기 중에 1학기를 주관성으로 한다는 건 주관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1학기 동안 계속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작업이 혹은 내가 했던 스타일이 그냥 막 고루하고 낡고, 쉽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구나. 이것이 어떤 가치가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나는 나의 주관성을 가지고 나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영화를, 작업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작업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해왔던 작업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좀 다른 것들보다 뒤떨어지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런 어떤 비슷한 경험들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저의 첫 번째 공동체는 저희 가족이었고, 정말 저희 가족이 정말 탄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끈끈한 공동체는 ‘또문’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였고,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 가서는 그 필름 아카데미가 정말 저한테는 세 번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짝이는 박수소리>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코다의 움직임들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영화를 통해서 연락을 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떤 코다 모임 같은 경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데려갔었는데 거기서런 경험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정말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정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가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모임을 가지게 됐고, 자주 모임을 계속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든 거죠.

어떤 식으로든 사회변화를 하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우리와 같은 경험들보단 좀 더 나은 경험을 하는 코다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책을 출간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비슷하고도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물론 <반짝이는 박수소리> 라는 책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길보라, 코다 이길보라의 개인적 경험이지, 어떤 코다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 하나 필요하다. 콘텐츠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투합해서 3명, 그리고 이제 해외 저자까지 해서 4명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기억의 전쟁>을 상영하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신기했던 건 20대의 혹은 20~30대 여성들이 실제로 정말 크게 제일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억의 전쟁>을 보고 나서 20대 여성, 그 영화를 봤던 20대 여성들이 스스로 상영회를 열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영화 계속 못 보는데 근데 개네들이 그 친구들이 뭐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체에 있거나 사업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상영회를 조직해서 자기들끼리 상영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스스로 대관장소를 물색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상영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상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관객과 대화(GV)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초청비도 주면서 와 가지고 저는 그 비용을 너무 좋아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20대 여성 친구분, 여성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상영회를 연 다음에 그 이후에 상영회 이후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약간 대안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소그룹을 만들어서 눈을 감고 영화를 복기해봅시다. 영화 복기하고, 그리고 소그룹에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소그룹을,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각자 이 영화에서 좋았던 지점과 혹은 생각나는 지점들을 공유해보고 그래서 소그룹을 해서 각자가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고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기억한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보내 시간들. 위안부 윤미향 대표의 어떤 논란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해자란 무엇인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걸 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혹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다른 어떤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우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요.

완전히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느슨한 공동체들이 저는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결국 저는 스토리피스를 만들고 싶단 욕망보다는 정말 시기에 맞는 이야기를 적합하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 제가 만든 작업에 큰 후회는 없어요. 2018년에 <기억의 전쟁>을 완성할 당시에 이길보라는 최선을 다했고, <반짝이는 박수소리> 영화를 만든 2014년에 이길보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걸 저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사를 쓴 이유



어렸을 때 다들 그렇듯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어른들이 화가되라 그런 말씀하시면 그냥 별로 중요하게 안 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예고반에 들어오라고 미술반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술반 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포기하면서 그때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접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튼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이과에 갔어요. 이과 선택한 것도 여고였는데 여학생들 거의 다 문과 선택해서 난 남자들처럼 수학을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과 선택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당연히 이제 점수 맞춰서 가니까 재미도 없고 또 아빠 편찮으셔서 아빠 간호하다가 등록금 납부기간을 놓쳤더니 제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알바를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취직이 잘된다고 해서 경제학부에 들어갔어요. 이과였다 문과를 간 거예요. 졸업할 때 짬 났는데 그때까지는 동아리 활동하고 연애하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계속 알바해서 경제적 독립하는 것만 집중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친구들처럼 세무사나 회계사 하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처음으로 차였어요. 맨날 제가 찻는데 감히 날 찻어.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상처를 크게 받아서 약간 거의 폐인이 됐는데 그러면서 안거예요. 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못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주는 거에 의존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다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계속 나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막 어디 미대를 갈까 막 알아봤는데 이제 알지도 못하는데 다 분야가 나뉘어 있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똑같은 걸 그리는 걸 연습하고 이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현대미술을 가르쳐준다는 학교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미대생이니까 <도발>이라는 책을 보는데, 지금은 절판됐어요. 아방가르드 문화사 책인 거예요. 그 친구가 읽는데 재밌어보여서 저도 읽으면서 내가 아는 미술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알게 됐어요. 다다이즘을 알게 되면서 ‘어, 이런 거면 하고 싶다’.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건 극히 일부고 옛날 거구나 알게 되면서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대미술가가 되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이 예술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우선은 그 도발 입을 때는 아 현대미술이 그러니까 예술이 뭘 할 수 있구나를 좀 알았고 그다음에 차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그렇게 된 거죠.

막상 학교 들어가서는 저는 되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중학교 땀데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뭔가에 대해서 항상 아무튼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는데 뭔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학생 오빠가 너 페미니스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대학에서 페미니즘이 막 번질 때였나봐요. 그래가지고 페미니즘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두 번째 대학 들어갔을 때 경제학부 들어간 대학에서 1학년 1학기에 여성학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저 그때 댄스동아리였는데 그 댄스동아리 바로 옆에가 총여학생회실이었어요.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 이렇게 문선? 그때 홍보할 때 말이 되게 잘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게요.” 해서 총여학생회 선거 운동 돕고 그리고 그 총여에서 맨날 살고 총여에 있는 책 읽고 비디오 보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미 페미니스트여서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 저희 학교는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 내내 크리틱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웨딩드레스 같은 걸로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형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싶은지가 궁금한데 그래서 그걸 물으면 그 욕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욕망이 없다. 욕망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이제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선 남학생들한테는 무서운 누나? 전 학교 늦게 들어갔으니까 누나잖아요. 제 앞에서 말실수하면 큰일 나는 누나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좀 특이한 사람이어서 좀 네 동료들도 많이 못 만들고 학교 다닐 때 좀 외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예술학교고 이제 예술가가 될 사람들이니까 되게 자율적이고 그런 비판적인 인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저희 학교는 좀 다른 분위기 였는데, 제가 생각한 거 만큼은 아니어서 그래서 어쨌든 좀 학교에서는 고민이 생각보다 사회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2008년 촛불 집회때 저희학교 깃발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아예 깃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깃발을 만들었어요. 핑크색에다가 막 그런 학교 분위기였어요. 학교가 어쨌든 무슨 학생으로서의 뭐 학습권이나 자율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였다가 학교도 조금씩 변하고 이랬던 거 같아요. 졸업 전시 때 제 작업이 드로잉 전시였는데 제 작업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제 관점을 담은 거였는데 그때 제가 만난 지 5년 된 남자친구랑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졸업하면은

결혼할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셔서 “엄마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하면서 밤샘 토론하고. 엄마는 이제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시죠. 나는 결혼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제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복해보이냐. 제 언니들 결혼했거든요. 언니들 얘기하고 엄마는 그래서 행복했냐 그러면서 대화했죠. 우리는 결혼 제도에 안 들어가도 우리가 잘 지내고 더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혼제도의 불합리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나마 합리적이신 분이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2009년에 졸업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제 관점에 동의한다기보다 그 내용을 딱 적절한 형식으로 했다 그리고 완성도 같은 거 그러니까 커다란 드로잉인데 0.1 미리로 그래픽 한 것처럼 숨 안 쉬고 그린 거여서 이걸 사람이 그렸다니 약간 이런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연애 관계 때부터 하는 의식이나 결혼식도 판에 박혔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4인 가정에 대한 상도 너무 똑같고 이게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제도지에다가 제도처럼 그린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 하고 냈더니 약간 저한테는 그전까지는 미술로 표현한다는 것이 제 고민이나 제 문제를 표현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그 작업하고 나니까 뭔가 다 해소된 느낌인거예요. 저는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어서 더 그래서 내가 할말이 없나보다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갤러리 같은 데서는 잘 팔리는 형식으로 작업을 제안하고 그때 이제 큰

갈등인거죠. 내가 갤러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맨 처음 생각했던 예술가로서 탐구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후자를 선택해서 작업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미술적으로 놀기라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좀 묶어서 작품들을 딱 만들어서 감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체험을 제안하면 관객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인터렉션하는 거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보통은 이제 예술 뭐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수업은 수업료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시스템 안에서 예술이 예술답지 못한 부분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수업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술적 체험을 선물을 주면 선물을 잘 받아주면 되는 거고. 혹시 나한테 또 선물을 하고 싶으면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걸로 해야 되니까 가치에 대해서 이분들이 막 고민하게 되고 되게 다양한 선물도 받고 이런 프로젝트를 두 번을 했어요. 그때 또 제가 부자놀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라서 2012년부터 부자놀이를 시작했거든요? ‘부자놀이’라고 이름 짓고 그러면서 집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서 최근에 이제 부자놀이로 작업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때 12년 때부터 했던 거를.

집이 커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세미나나 파티를 하는 공간으로 계속 썼기 때문에 그 8명 10명 모여서 했던 수업이 미술적으로 놀기가 가능했고, 저는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다고 생각이 돼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는 뭔가를 해야지 생각해서 그때

또 정부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아카데미 같은 걸 열었어요. 1회로 활동가 그 수료를 하면서 어떻게 직접 관객과 만날까 고민을 하다가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 입시미술을 그만 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 안에 넣는 것, 말 잘 듣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 들어서 이제 관두고 그 다음에 세월호 부모님들하고 연대하면서 활동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미술적으로 놀기 말고 뭔가 작품 생산을 한 거는 한 5년 만에 이제 2015년에 세월호 1주기 때 그 기념 전에 작업 출품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작업 시작하고 미술교육은 약간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각문화 교육으로 좀 전환해서 활동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월호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17년째 연애 하고 있는 짝궁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자놀이를 같이 하다가 2014년 초반에 따로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 친구는 가사노동을 많이 해보고 잘했는데 저는 너무 못해서 권력관계가 이렇게 안 그래도 젠더권력도 있고 나이권력도 있는데, 그래서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나도 혼자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살고 있을 때 세월호 사고가 난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더 몰입하고 힘들고 미안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광화문 맨날 뛰쳐나가고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이런 모습을 보고 친구가 제가 그때 합정동 살았는데 망원역에 맨날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가서 거기 멤버가 된 거예요. 제가 간 날 하필 그 분들이 회의를 할 때여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망원역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서 티켓팅하고 서명 받고 이제 광화문에 갔는데 그 때 아버지 두 분이 영석 아버님이랑 민우 아버님 계셨는데 두 분한테 제가 망원역에서 모은 서명지를 드리러 갔는데 김치에다 물 말아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 성미산 마을 분들한테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반찬 해주셔서 제가 그걸 나르고 이러면서 광화문에 계속 가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게 된 거죠. 청와대 앞에서 월요일마다 피켓팅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2-3일은 내내 광장에 있거나 역에 있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3년 동안은 제가 혼자 나와 있어서 부자놀이에서 이제 나와서 저렴한 월세에 살 때였고 그다음에 이때는 짝궁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 전에 같이 살 때 짝궁의 빚을 5,000만원을 우리가 함께 갚아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입시미술 그만두고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때여서, 약간 리펀드처럼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페미니즘 미술 강의하고 감각 드로잉 워크숍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수입 이렇게 얻고 조금씩 글 써서 기고해서 활동했어요. ‘일다’는 2008년에 제가 촛불 집회 때 맨날 뛰쳐나가다가, 이제 저는 미술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보탬이 될까 하다가 페이스페인팅을 했거든요. 나가서 고양이 그려주고 그런 거 하는 걸 계속 보고서 이제 또 다른 친구가 그 당시에 일다에서 평범한 여성들을 소개해서 인터뷰하는 기획이 있었어요 릴레이가. 저를 인터뷰하면 좋겠다고 일다 편집장님한테 연락 드려서 편집장님이



저를 취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 기사가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던 상태였는데, 제가 다녔던 예술학교가 2009년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 학교소식이 외부에 너무 왜곡돼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유인촌이 문광부 장관이어서 황지우 총장 뭐 이런. 제일 기막혔던 게 학교에 이제 되게 교권 탄압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서로 대강당에 모이자고 했어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학교였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저도 갔는데 되게 릴레이 회의가 있어졌어요. 모두 다 발언할 수 있게 하고 5-6시간인가 되게 길게 회의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막 난거예요. 한예종 빨갱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있다. 너무 불쾌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이월드’에 어떤 소식들을 쓰는데 그걸 보고 일다에서 학교소식 전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셔서 기사를 쓰면서 이제 전시 소개하는 글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자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일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행사 기획해서 이렇게 해서 돈벌어줘야지 하고 이러면서 계속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일다의 연결로 ‘두잉’에서 2017년에 전시를 했는데 개인전으로는 네 2017년 이니까 개인전은 되게 오랜만인거였죠. 기획개인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전시는 작업이 관객을 만나는 것을 전시라고 생각했을 때 미술적으로 놀기는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오브제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던 거 같아요. 그 전시가 한 달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셔서

너무 반갑게 받았는데 전시시작일로 말씀하신 거가 너무 가까운 날인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작업들을 걸까? 했는데 거기가 화이트 큐브가 아니고 공간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페미니즘 멀티 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업들로 이제 이전부터 했던 고민을 했는데 그 2017년 작업이 나오기 전의 또 배경이 있어요.

이전에 2015년에 민우회하고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민우회에서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성형산업스파이단! 저 합정동에 이사 갔을 때 민우회 가까워져서 민우회에서 소모임을 했었는데 바디프로젝트라는 소모임을 했어요. 바디프로젝트 그래서 저희 계속 모였는데 몸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막 그래서 뭐 어떤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는데 바디 프로젝트 함께했던 민우회활동가분이 주가 돼서 기획한 게 성형산업 스파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 스파이단 하면서 처음으로 성형외과가가지고 상담 같은 거 받고 다른 멤버들이 받았던 상담도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시를 했었어요. 성형산업스파이단 발표회 때 그때 이제 텍스트 읽고 해치고 이런 작업이나 뭐 사운드 작업이 나왔던거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민우회에서 또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용모난잡’이에요. 뭐냐면 취직할 때 용모단정 안에 숨겨진 의미들 같은 거? 그때 작업때 제가 이제 종교를 아 저기다 2015년에 ‘외모지상교’를 만들었어요. 성형산업스파이단하면서 우리나라의 최대종교는 외모지상교다 그래서 2016년에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재직감사예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런 상태로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 두잉 전시가 나오게 되었어요.

민우회하고 인연은, 친구가 또 민우회에서 2011년인가 2012년에 벼룩시장 바자회하는 걸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호응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2008년에 했던 작업이 있는데 ‘놀러와요 낮카페, 함께해요 옷가게’ 이런 작업이 있는데 옷을 매개로 해서 옷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였어요. 그걸 좀 민우회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민우회 활동가랑 저랑 미팅을 주선 했는데 제가 막 얘기하다보니까 현대 페미니즘 미술에서 했던 시도들을 알면 민우회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페미니즘 미술을 알려드리는 ‘다다익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우회에서 힌트 되게 많이 받으시면서 더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프로젝트 했을 때 저를 초대해서 같이 전시하게 도와주시고 뭐 이런 또 인연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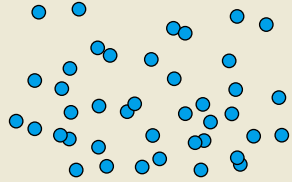
얼마 전에 온라인 전시로 이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두잉에서 한 이후로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시를 할 어떤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헬로우 뮤지엄이라는 어린이뮤지엄에서 그 전시를 보시고,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전시를 기획해서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잉에서 했던 전시를 뮤지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약간 네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워요. 저 말고도 이런 주제나 작업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룹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선언을 했어요. 퍼포먼스로.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2017년에 두잉에 설치를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효진쌤한테 전화가 받았어요. 그래서 전시 열어놓고 그러니까 전시를 봄에 했었는데 봄에서 초여름인가 그때 했었고 여름에 거기 한뼘책방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부터 책 작업을 시작한 거죠. 책이 나온 게 2019년 3월 8일! 책이 나오고 나서 북토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가 2018년 한 우리나라가 다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3월 8일날 나와서 4월 5월 6월까지 북토크 같은 게 많이 있다가 점점 없다가 올해 한 번도 없다가 얼마 전에 청양에서 책모임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되게 반갑게 막 달려갔었어요.

누군가 불러주면 달려가는 거, 그 순간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미술가로서 작업자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거 자체도 제 작업이에요.

답는 글





“나는 왜 아티비스트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

나와 내 동료들에 대해 설명할 언어와 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 시작이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작업자와 활동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지와 응원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큰 정체성은 활동가이자 예술가인데, 활동가들의 영역에서도 예술가들의 영역에서도 다른 한 쪽의 활동을 좀 줄이고 완전히 한쪽의 영역에 정체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곤 한다.

예술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동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 작업과 공부를 했다. 오직 학교와 예술이라는 세계 안에만 갇혀 있었다.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인문 조교로 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학교의 행정 조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거 해고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글을 쓰고 예술을 말한다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력했다.

짧게는 몇년 길게는 이십여 년을 학교에서 일한 행정 조교들은 노조를 만들어 학교 마당에 천막을 치고 노숙 투쟁을 했다. 나는 천막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학자를 초대해 그들을 지지하는 강연회를 여는 작은 행동을 했고 그 뒤로 내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운동이나 연대라는 것은 학생회나 신문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삶이 변했고, 그 뒤로는 내가 읽은 책들의 구절들을 직접 삶에서 살아내고자 했다. 용산참사를 서울에서 보지 못했다면 그때의 나는 좀 더 무심하게 살았을 지도 모른다. 용산 참사를 뉴스에서 본 날 나는 명치가 갑자기 아팠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세상을 이따위로 굴러가게 내버려둬서 사람이 도시 한 가운데서 불타죽었다고 느꼈다. 무서웠다.

세계의 전부로 학교밖에 몰랐던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다. 행정조교들의 싸움은 이년 여를 거쳐 반쯤의 승리로 복직 약속을 받고 마무리되었고 나는 미련 없이 학교를 떠났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보다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고 만족스러운 내가 되고 싶었다. 그 뒤, 시민단체 안에서 그리고 길 위의 연대현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창작자와 또 활동가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과 같이 신념을 공유하고 취향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달려가서 연대를 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업자들과 공동 작업을 했다.

그러나 예술가 혹은 활동가로서 좀 더 한 쪽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과 권유를 꾸준히 받곤 한다. 어느 쪽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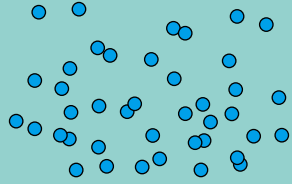
경계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문서가 아니라 공기처럼 나에게 작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방식이나 방향성뿐만 아니라 작가의 생존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작업자들을 만났고 또 이와 같은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자료 역시 발견하게 되었다.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질량과 속도만 있고 방향이 없다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다. 나는 나와 수많은 나, 우리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규명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동료들과 새로운 작업자들과의 인터뷰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에 대한 답을 찾았다보다는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불안한 세계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된다. 질문하고 움직이는 것을 계속할 힘.



# 별첨





## 연구 진행

### 0.

사전 연구 조사 및 개인적인 연구 동기 정리와 아티비스트로서의  
**본인의 작업 연보 정리 (2020.5 ~ 2020.6)**

### 1. **집담회 진행 (2020.7)**

함께 작업한 동료들(창작집단3355)과의 집단 대화 :  
박강아름, 허성, 안주현, 기푸름

### 2. **일대일 인터뷰 진행 (2020. 8 ~ 2020. 10)**

나희경, 내가 보고 싶은 연극을 기획하고 싶어서 페미니즘 연극제  
예람, 연대도 기획도 음악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심의 크기만큼  
지성은, 여성. 일상. 퍼포먼스.

신승은,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은하수, 엄마 예술가 자아 그리고 은하수살롱

이길보라, 영화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커뮤니티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사를 쓴 이유

마법사, 매일매일이 가진 힘

우유니(계),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은 디자이너

김정, 스스로 감혀있던 틀을 깨고 내가 만든 연극

황형영(최혜영), 모든 건 감정에서 시작된 이야기

3. 이후 1차 추가적인 인터뷰 계획 (2020.11 ~ 2021.12)

황윤, 우리가 지구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면  
지현, 노래하고 글 쓰고 교육하고 그리고.  
연구자 한윤애

4. 아티비스트 플랫폼 기획 및 1차 실험 (2020.12 ~ 2021.3)

sns 계정 개설, 블로그 or 홈페이지, 뉴스레터 or 웹진

# 연구 메모

## 1. 연구와 관련하여 남은 숙제와 이후 계획들

- 아티비스트artist인터뷰 추가적인 진행
- 아티비스트artist들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가능성 만들기

## 2. 작은 것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 명의 아티비스트로서의 2021 내년 새로운 계획들

- <테이블탐정> 독립출판물과 동네서점 연구와 실험 공간 펼치기
- <몸의 집> 노년 여성의 몸의 기억에 대한 아카이빙
- <비건 문학> 글쓰기 워크숍과 낭독회를 통한 담론 만들기
- <체류자들>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다원예술 퍼포먼스 제작과 공연

## 3. 작은 것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 명의 아티비스트로서의 지속되는 계획들

- <이방연애 대본집> 퀴어 여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연극
- <여성이 기록하는 여성 vol.3> 구술 인터뷰 작가단과 책자 작업
- <다다름필름파티> <다다름필름북> 몸 다양성, 외모 다양성 영화제
- “#젠더 #가부장제 / #세대 담론 / #제로웨이스트 /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 해시태그를 가진 다큐멘터리 기획 제작 배급
- <박강아름결혼하다> <송어깍기> <쓰레기덕질소셜클럽>
- <재난학교>

